



6 Focus
자랑스러운 동국인
이스타항공 이상직 회장
 "Only One 전략 바탕으로 새로운 항공 시장 개척하는 것, 학창시절 동약에서 배웠다"

동대신문

금주일언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마음을 버리게 수양하고 집착을 끊은 다음, 소유욕을 버리고 기뻐하며 번뇌를 다 없애어 빛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들어간 것이다

법규경 6장

www.dgupress.com

The Dongguk University Weekly Newspaper

제1490호 2010년 (불기 2554년) 4월 5일 월요일

Cover Story 대형 강의의 문제점과 대안

대형 강의, 학생도 교수도 힘들다

전임교원 확충 급선무... 조교 역할 확대, 교수법 개선도 필요

한 전공기초과목을 수강하는 2학년 A군. 100명이 수강하는 이 강의에 A군은 벌써 2번이나 결석했다. 많은 사람이 듣는 강의인지만 교수 출석확인을 거르는 경우가 다반사(茶飯事)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A군은 수업에 결석해도 시험격정을 하지 않는다. 친구가 지난 학기에 수강했던 같은 강의의 '족보'를 위유기만 하면 시험문제도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 강의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콩나물 강의실, 칠판도 안보여

대형 강의의 평균적으로 80~100명 이상의 수강생이 수업을 듣는 강의로, 대부분 전공기초과목들이나 교양과목들이 주를 이룬다. 현재 우리 대학은 전체 강의의 2,223개 중 80명 이상의 강의가 128개, 100명 이상의 대형 강의가 45개다.

대형강의는 비좁은 자리, 앞사람 때문에 보이지 않는 칠판 등으로 인해 수업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교수의 수업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교육효과도 매우 떨어진다. 대형 강의를 수강하는 최원영(경영3) 군은 "수업 시작 20분 전에 앞자리를 잡기 위해 강의실로 향해야 한다"며 "뒷자리라도 앉게 되면 칠판 글씨도 잘 안 보이고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확인하기 어려워 수업을 듣는데 불편함을 겪는다"고 말했다.

대형강의는 또 강의실이 큰 탓에 수업분위기도 어수선하다. 실제로 수업중에 많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친구들과 잡담을 하거나 대놓고 엇대려 잠을 청하는 학생도 있다. 한 대형 강의를 수강하는 B양(사과대)은 "교수님이 출석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수업을 듣지 않고 혼자 공부해도 학점이 높게 나올 수 있다고 들어 수업 집중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질적 수준 떨어지는 대형 강의

대형 강의가 갖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점도 심각하다. 전공 수업에 비해 강의의 질(質)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제한된 시간에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할 수 없이 일방적인 강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 제출한 과제물에 대한 첨삭(添削)이 없거나, 매년 반복되는 단답식 형태의 시험으로 인해 '족보'가 떠도는 강의도 존재한다. 교수와 학생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1백 명 정도의 대형 강의에서 교수와 수업내용에 대해 활발한 질문과 토론을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대형 강의를 수강하는 서봉권(경영3) 군은 "수강인원이 50명만 되도 충분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겠지만 대형강의에서는 이러한 소통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교수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

교수도 대형강의가 힘든 것은 마찬가지다. 많은 인원과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학습내용을 교수가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주입식 강의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또

교수가 대형 강의의 수강생 태도나 성실성 등을 면밀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각종 리포트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이다. 현재 100명이 수강하는 경제학개론을 강의하는 홍승기(경제학) 교수는 "100명 정도의 수강생들의 과제물을 일일이 검사하고 피드백을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한 대형 강의를 맡고 있는 교수는 "학생들이 학점을 후하게 주는 교수의 강의나, 영어강의를 피해 수강신청을 하다 보니 대형 강의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대형 강의의 문제, 해결방안은?

대형 강의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전임교원 수를 늘리는 것이다. 대학정보공시 지표에 따르면 2009년 우리대학 전임교원은 516명(대학원 포함)으로 전임교원 확보비율(편제정원 기준)은 68.8%,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편제)는 33.1명이다. 서울대의 130.6%·13.9명, 연세대의 99%·20.2명, 고려대의 92.4%·22.4명에 비하면 크게 부족하다. 교원인사기획팀 김계철 직원은 "올해는 정년퇴임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으로 인해 학습내용을 교수가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주입식 강의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또

적인 해결책이지만 단기적으로 이런 방법이 어렵다면 조교의 역할을 강화하거나 분반제도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 대형 강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강의의 조교를 두고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돕는다. 카이스트 또한 대형 강의를 30명 정도의 인원으로 분반하고 조교를 배치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이외에도 분반(分班)제를 도입하고, 교수학습개발센터 등에서 발표한 대형 강의용 교수법을 강의에 적극 반영하는 것 또한 해법이 될 수 있다.

정용재 기자 wonder@dongguk.edu

본사사령

◇ 임수습기자

- ▲ 임정민 (문과대 국문학과 1)
- ▲ 이상원 (문과대 영문학부 1)
- ▲ 권황 (사과대 경제학 1)
- ▲ 최익래 (사과대 신문방송학 1)
- ▲ 강기모 (경영대 경영학부 1)
- ▲ 전민철 (경영대 경영학부 1)
- ▲ 박유리 (예술대 불교미술학 1)
- ▲ 김보혜 (예술대 문예창작학과 1)

-이상 4월 5일자



무소유

정병조

윤리문화학전공 교수

불교의 출가사문들은 무소유를 이상으로 삼아왔다. 부처님 당시부터 이 무소유의 삶은 철저히 이행되어 왔다. 스님들이 가질 수 있도록 허용된 물품은 삼의일발(三衣一鉢), 지팡이, 햇빛가리개, 물 마시는 표주박이 전부였다. 불교보다 더 철저히 무소유를 지키는 종교는 지나교(Jainism)가 있다. 그 교조인 마하비라(Mahavira)는 부처님과 거의 동시대에 살았는데, 그들 계명의 으뜸은 무소유였다. 아무 것도 지닐 수 없기 때문에 평생을 별거벗고 살았다.

이 무소유를 재가의 입장에서 보면 청빈, 검약의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분에 넘치는 호사를 삼가고 욕망을 절제하는 삶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은 인간의 삶을 소유와 존재로 나누어 설명한 적이 있다. 소유의 병 때문에 이 세상은 어지러워졌기 때문에, 철저히 존재하는 인생으로서의 질적(質的)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천년 동안 인류는 소유의 노예가 되어 살아왔다. 고대에서는 영토 전쟁, 현재는 경제 대결이다. 경제라는 고상한 말을 붙여 보았지만, 현대는 '돈의 전쟁' 시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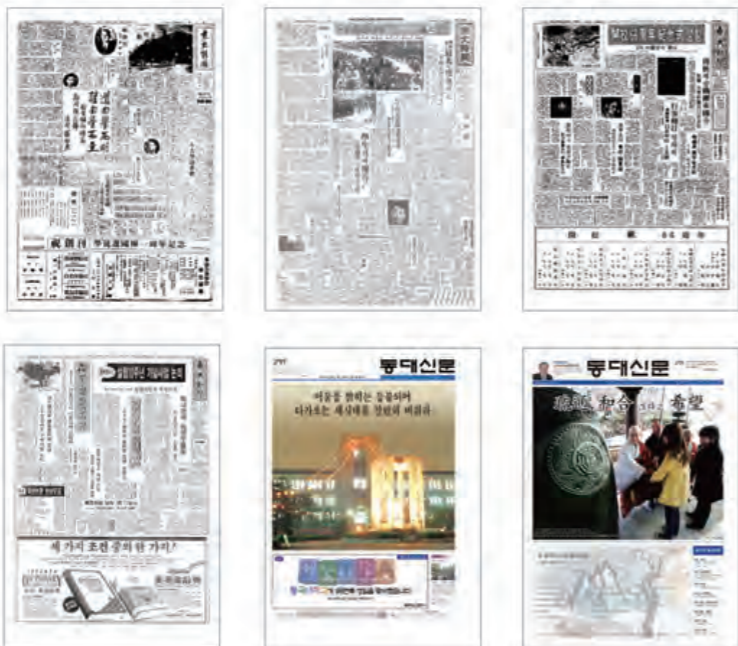
이 끝없는 욕망의 유희가 낳은 것이 바로 오늘날 세계 분쟁의 현주소이다. 상생(相生)과 협력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들 세계는 이 갈등구조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가진 자를 증오하는 맹목적인 적개심은 혼돈을 가중시켜가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무소유와 불살생은 결코 소극적인 은둔주의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현실참여 근본정신으로 이해될 수 있다. 흔히 불교는 무소유를 이상으로 삼기 때문에 현실도피적인 종교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부(富) 자체는 결코 죄악시 될 수 없다. 그 부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문제 삼을 수는 있다. 『육방예경』(六方禮經)에서는 재가자의 수입은 삼등분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삼분의 일은 가족 부양, 삼분의 일은 저축, 나머지 삼분의 일은 불사(佛事), 즉 남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했다. 추악한 이기심을 충족시키려는 부는 부당하지만 이익중생의 부는 권장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무소유라는 향기로운 선언을 다짐했던 법정스님이 입적하였다. 무소유라는 소유마저도 버리고 진정한 무소유로 회귀한 것이다. 우리학교도 법정스님과 같은 각별한 인연이 있다. 동국역경원에서 경전 한글화 작업을 주도하였고 우리말 불교성전도 출간하였다. 스님의 왕생극락을 두 손 모아 빌면서.....

금주의 동대신문 Hot Issue

- 2 대학보유 특허로 수익사업 시작
- 4 연구 선순환 구조, 기술지주회사가 해당
- 6 자랑스런 동국인을 찾아 (3) 이스타 항공 CEO 이상직 동문
- 7 회장기 전국대학야구 춘계리그전을 앞둔 야구부 집중취재
- 9 법정스님 추모 특집 - 무소유의 자유와 소유의 부자유
- 12 2010 봄 트렌드 대학생 메이크업 소개

동대신문의 정기구독 방법이 변경됩니다.



- 2010년부터 동대신문 정기구독이 유료로 전환됩니다.

올해부터 동대신문의 우편 정기구독이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됩니다. 동대신문은 그동안 1만여 동문과 사회단체, 공공기관, 고교 등에 신문을 무료로 우편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점증하는 물류비용과 인터넷 신문과 웹진 발송으로 우편발송 정기구독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자발적 구독료 납부 캠페인을 벌인 데 이어 올해부터 전면 유료 구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년 정기구독료는 1만원입니다.

- 동대신문은 동국대학교 발전과 교우선양에 앞장서겠습니다.

올해로 창간 60주년을 맞이하는 동대신문은 앞으로도 정론직필의 자세로 거침없는 진실된 보도와 다양한 부대사업을 통해 동국대학교 발전을 위해 한층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갈 것임을 독자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학생기자들이 건강한 언론인으로 자라나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독자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연간 정기구독료 : 1만원

※ 입금하실 곳 : 제일은행 114-20-734228 (예금주 ; 동국대학교)

※ 입금하신 후 전화(02-2260-3495)나 이메일(dgupress@dongguk.edu)을 통해 구독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학번, 연락처) 등을 반드시 남겨주셔야 정확한 우편발송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동대신문사

□ 구독료를 납부해주신 배충남 1966 님, 유영련 님, 이1985 행정 님, 조종근 님, 차미영2001 님께서는 현재 입금자와 구독자명이 일치하지 않으오니 전화(02-2260-3495)로 연락주셔서 구독자정보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대학보유 특허로 수익사업 시작

산학협력단 자본금 10억 출자 ... 대표이사에 유효상 교수

우리대학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수익사업화할 수 있는 기술지주 주식회사가 설립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리대학은 지난 달 18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설립 인가(認可)를 받아 산학협력 기술사업화 전문회사인 '동국대학교 기술지주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이번에 설립된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중 우수 기술을 발굴(發掘), 선별(選別)하여 자회사를 창업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다. 우리대학 기술지주회사는 자본금 약 10억 원(현금 3억 2천만 원,

현물 6억 8천만 원)의 규모로 산학협력단에서 출자(出資)해 설립됐다.

기술지주주식회사는 '기술사업화'를 통한 대학 발전의 가속화!(Accelerating Innovation Cycle!)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수익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설립이 확정된 자회사는 BT분야의 '재영 솔루션 조인트 벤처'와 CT분야의 '꽃다지' 등이며 올해까지 총 5개의 자회사를 설립해 2017년까지 자본금 500억, 연 매출 1,000억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자회사 설립은 교수 실험실 기반 창

업, 외부기업과의 합작(合作) 투자, 기존 회사 지분 인수 등의 방법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처럼 기술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해진 것은 지난해 2월 '산학협력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대학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됐기 때문이다.

유효상 기술지주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우리대학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사업화해 최대의 수익 창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7면
이지연 기자 lly88918@dongguk.edu



화재 예방 훈련 지난 3월 30일 과학관 주변에서 화재 발생시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방훈련이 시행됐다. 김윤수 기자 yshero21@dongguk.edu

회전무대

인재의 물꼬

○...우리대학의 한 동문이 대내·외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민지영 동문(응용생물98졸)의 논문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저널 네이처 지에 등재됐다고. 자연과학분야에서는 대단한 권위를 자랑하는 잡지인 만큼, 학내 구성원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례가 아닐지.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이번 등재를 계기로 동악에 인재의 물꼬가 트이는구나!"

국위선양

○...A: 요즘 천안함 침몰이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오늘 대한민국 해군이신 B씨를 만났습니다. 요즘 해군에서 유가족에 대한 취재를 막는단데 왜 그러시는 건가요?
B: 원인규명도 제대로 못하고, 인명구조도 못해서 나라방신이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론이라도 잘 통제해서 국가의 체면을 살리려고요. 이렇게 해서라도 국위선양 해야죠~
A:..이런 게 국위선양이야? 나가!

술담 쌓기 환영회

○...바람도 선선한 춘삼월 너도나도 함께 모여 산으로 MT를 떠나는데, 손에 든 보따리를 열어보니 이 술 저 술 차고 넘쳐 술만 술술 나오구나. 본래 MT라 함은 신입생 환영회가 목적이기는 하나, 그 수단이 술뿐이니 안타깝기 그지없구나.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진목 쌓기는 차선이요, 술담 쌓기가 으뜸이리!"

운동장, 복합교육시설로 조성(造成)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변경 동의안 제출로 가시화

2만 3353㎡ 규모의 우리대학 운동장과 수영장이 복합교육시설로 조성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시의회에 현재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운동장 부지를 공원 겸 학교부지로 중복(重複) 결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변경동의안을 제출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국가소유인 운동장-수영장의 2만3353㎡ 토지에 우리대학 소유 입야1439㎡를 합쳐 이곳에 대규모 교육 복합시설과 주차장, 시민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교육 복합시설은 지하 6층, 총면적 5만9122㎡ 규모로 지어지며 학생복합관, 영상미디어 실습실, 강당, 체육관, 주차장 등 학교시설과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지상에는 남산의 상징인 소나무를 집중적으로 심어 소나무 군락지를 조성하고 잔디 동산과 산책로, 전망데크, 정자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운동장 개발 계획은 지난해 말 중구 의회의 동의(同意)를 얻었으며, 이달 말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 서

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본 계획은 서울시가 남산자락 복원을 선언한 '남산르네상스 계획'에는 명시(明示)되지 않았지만 남산르네상스 계획의 장충자락 복원 사업과 연계(連繫)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이 계획의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지만, 통과하더라도 심의 과정에서 지하 시설물의 구체적인 면적과 내용 등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부 dgupress@dongguk.edu

총학, 학생대표자회의 개최

교육환경 개선 10대 요구안 결의

총학생회(이하 총학)가 지난 30일 2010년 상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열고 총학생회의 한 해 사업방향과 상반기 사업계획, 교육환경 개선 요구안 등을 의결(議決)했다.

학리관 소강당에서 열린 학생대표자회의는 총원 100명 중 51명이 참석해 정족수(定足數)를 달성했다. 이날 회의는 등록금 동결을 위한 활동, 전체일꾼수련회 등 기간사업에 대한 보고(報告)로 시작돼, 총학 집행부 임원 인준에 대한 의결로 이어졌다.

회의에서 의결된 총학생회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공동행동, 학생회 홈페이지 개설, 반딧불 강의실, 여론게이지 등이다. 또한 전체학생회의에서는 총학이 학교 측에 요구하는 교육환경 개선 10대 요구안을 의결했다. 교육환경 개선 10대 요구안의 주 내용은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성, 학교 대표자들과 학생 대표자들의

정기적 간담회, 학사행정 조정위원회 구성, 학교 예산 사용내역의 투명한 공개, 등록금 분할 납부 기간 및 횟수 증가 요구 등이다. 총학생회는 우리대학 교육환경 개선 10대 요구안 관철을 위한 게릴라 문화제를 학생들이 봄비는 시간, 학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박인우 총학생회장은 "염속한 분위기 속에서 발언하고 구호(口呼)해야 문제가 더 잘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제 학내 문제들에 대해 학우들 간에 이야기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회의 후 마련된 질의응답시간에는 입학정원관리시스템에 대한 여러 의견이 오갔다. 강현석 사과대 의원장은 "입학정원관리시스템 자체가 여러 모순을 지니고 있다"며 새로운 평가항목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 lly88918@dongguk.edu

2010 희망의 인문학 과정 입학식

문과대학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0 희망의 인문학 과정' 입학식이 지난 23일 이혜량 예술극장에서 개최돼 총 330명이 입학(入學)했다.

'희망의 인문학 과정'은 서울시내 노숙인, 저소득 시민에게 배움을 통한 자활의지를 불어넣고자 기획된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입

학식이 두 번째다. 인문학 과정은 철학, 역사, 문학, 예술, 글쓰기 등 5개 인문학 분야의 기본강좌와 문화공연관람 등의 체험학습으로 구성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입학식에 참여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희망의 인문학 과정은 삶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입학생들을 격려(激勵)했다.

전체 해오름제 오는 7일 개최

전체 해오름제가 오는 7일, 오후 5시 만해광장에서 개최(開催)된다. 전체 해오름식은 각 단과대에서 주최하던 해오름식을 총학생회 단위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 전체 해오름제에서는 학생회 출범식 및 고사(告祀), 동아리 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3회 자랑스런동국가족상

여러 세대 또는 여러 가족에 걸쳐 동국대학교의 일원이 된 동문가족을 찾습니다.

■대상: 직계 3대 이상이거나 5명 이상의 동문가족
* 동문가족 범위
- 신청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방계혈족

■시상 일시: 2010. 5. 7.(목) 개교기념일 행사

■신청 기간: 2010. 4. 5.(월) ~ 4. 18.(일)

■신청 방법: 학교 홈페이지(www.dongguk.edu/main/main.jsp) 일반공지사항에서 확인

■기타문의 사항: 대외협력단 진혁진 ☎ 02-2260-3795

대 외 협 력 단

중간고사 기간 중 도서관 이용 안내

중앙도서관에서는 2010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기간(4.12~23일) 중 면학 분위기 조성 및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1. 중앙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건 물	구 분	개관시간(토, 일요일 포함)	비고
중앙도서관	자료실	08:00-22:00	
	4층 열람실	24시간	제2열람실
	별관 열람실	24시간	
법학도서관(만해관)	자료실	08:00-22:00	
	열람실	24시간	

※ 단, 멀티미디어실(중앙도서관, 법학도서관) 개관시간은 학기 중과 동일
※ 좌석 사석화, 한 사람이 여러 자리 잡아 주기 등 비양심적인 행동 금지

2. 강의실 대관서비스
가. 목적: 시험기간 중 비어있는 강의실 일부를 도서관 명의로 대관하고, 사용하지 않는 강의실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안내 하오니 학생여러분의 적극적인 활용 바랍니다.
나. 강의실 대관: 시험기간 중 비어있는 강의실을 도서관 명의로 대관
(1) 강의실 이용시간: 07:00~22:00 중 강의실 상황에 따라 유동적
(2) 대관 강의실 및 대관시간: 도서관 홈페이지 공지
다. 강의실 조회 시스템 안내:
(1) U-Drims 시설대관 신청에서 확인 가능
(2) U-Drims → 대관신청 → 교내시설 → 신청하기 → 반강의실 조회
(3) 강의실 사정으로 인하여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중 앙 도 서 관

신입생 환영 음악회

- 일시: 2010. 4. 7(수), 12:00
- 장소: 중앙도서관 지하 2층(인문과학실 특별무대)
- 연주팀: 'AK Dream Ensemble'
- 연주곡명
 - BACH Brandenburg concerto no.3 1st movement only
 - BRAHMS Hungarian Dance no.5
 - HENDRIX - RIFFKIN Purple Haze
 - DVORAK Finale from "American" quartet.
 - ABBA Medley
 - 사랑의 기쁨
 - 엔터테이너

학 사 지 원 본 부

동국아트컴퍼니 학교기업 지원사업 선정

연간 3억 원씩 5년간 15억원 지원... 학교기업 지원금 중 최대 금액

우리대학이 설립(設立)한 학교기업 '동국아트컴퍼니'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학교 기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총 15억 원을 지원(支援)받는다. 동국아트컴퍼니는 교과부로부터 학교기업의 성공가능성을 제시한 점을 인정받아, 올해부터 연간 3억 원씩 5년간 총 15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동국아트컴퍼니 관

계자에 따르면 교과부의 15억 지원은 이번에 지원되는 학교기업 지원금 가운데 최대(最大)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국아트컴퍼니는 교과부 지원 외에도 지난 해 한국산업기술재단이 주최한 학교 기업 지원 대상에 선정돼 1년간 2억 4천 7백만 원을 지원 받은 바 있다.

또 그간 (주)IHQ, 도로시컴퍼니(주)와 총 105억 원 규모의 산학협력 계약을 체결(締結)한 바 있으며 연극과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을 제작·기획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

최근에는 (주)MBC PlayBe와 산학협력을 체결하고 국내 최초 어린이 직업 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 등 다양한 테마파크 콘텐츠 개발과

운영에도 참여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擴張)해 가고 있다.

학교 측은 "동국아트컴퍼니가 공연 엔터테인먼트 대표 기업으로서 입지(立地)를 다짐으로써, 다양한 산학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철환 기자 lan@dongguk.edu



연등이 수놓은 하늘길 오는 4월 15일 연등 점화식을 앞두고 학내 곳곳에 연등 달기가 시작됐다. 김윤수 기자 yshero21@dongguk.edu

장학기금 위한 동국인 기부 손길 '흔흔'

오 총장 장학금 3천만원 쾌척...학과 동문회·보직자도 기부 잇따라

학생들의 장학금 마련을 위한 동문 및 학내 구성원들의 꾸준한 기부 활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같은 기부열풍은 각 학과별 동문들의 장학금 기부 뿐 아니라, 오영교 총장과 교직원 보직자들의 기금 조성 등 모든 동국인들의 뜻이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모아지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영학과 총동문회(회장=김철순)는 지난 30일 '경영학과 총동문회 장학기금'으로 4천 5백만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대외협력단의 김진환 팀장은 "현재 경영학과 총동문회에

서 4천 5백만 원의 기부금을 쾌척한 상태지만, 올해 말까지 임금 총액이 5천 만 원 이상이 되면, 임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부에서 매칭펀드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부의 매칭펀드 지원금은 개별 학과 동문회와 학교 간에 발전기금 조성과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모금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캠페인에 따른 결과다.

또한 이번 등록금 동결로 예산이 긴축(緊縮) 편성된 점을 고려해, 교직원 보직자들이 마련한 '제자사랑 장학기금' 모금 결과 현재까지 약 1

천 5백 만 원의 기금이 모아진 상태다. 본 장학금에는 모두 51명의 교직원 보직자가 참여하며, 내년 2월까지 보직수당의 30%를 장학기금으로 적립하게 된다. 한편 교직원들의 기금 조성에 오영교 총장도 동참(向參)하며 학생들의 장학기금으로 3천 만 원을 내놓았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는 '故 박관호 교수 제자사랑 장학금' 수여식은 지난 9일 열려, 총 4명의 학생이 각각 3백 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故 박관호(화학) 명예교수가 우리대학 기초과학분야 연구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부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장학금은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대학원생 중 학업성과 연구업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해 지급하고 있다.

또 컴퓨터공학과 동창회는 지난 29일 제 9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총 3명의 학생에게 각각 150만 원씩 장학금을 전달(傳達)했다. 이번 학기까지 장학생 누계는 총 28명이며, 누계 금액은 4천 2백 만 원이다.

한편 우리대학 학생군사교육단 출신 48기 입관 소위들은 후배사관과 모교발전을 위해 사회생활 첫 월급의 일부를 기부하기로 했다. 이들이 내놓은 장학금은 약 1천 2백 만 원에 이르며 기금은 ROTC 후배들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철환 기자 lan@dongguk.edu

축구부 황명규 군, FA컵 최우수선수

프로구단 수원 삼성과 21일 32강전 벌여



축구부의 황명규 선수가 우리대학 축구부의 FA컵 3라운드 진출을 이끈 공을 인정받아 '2010 하나은행 FA컵' 2라운드 최우수 선수(Man Of the Round)로 지난 29일 선정(選定)됐다.

대한축구협회(회장=조중연)는 "황명규 선수가 FA컵 2라운드에서 포천시민구단에 맞서 2골을 몰아치며 동국대의 승리를 이끌었다"며 황

선수를 2라운드 최우수 선수로 선정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황명규 선수는 지난 20일 열린 전년도 K3리그 우승팀인 포천시민구단을 상대로 후반 5분 역전골과 후반 35분 쐐기골을 터뜨리며 우리대학의 3대 1 승리를 견인(牽引)했다.

한편 이번 승리로 3라운드에 진출한 우리대학은 오는 21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지난해 우승팀인 수원 삼성을 상대로 FA 컵 16강 진출에 도전한다.

최진아 기자 gina@dongguk.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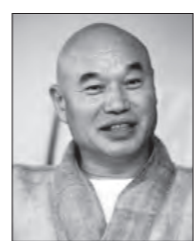
불교신자 이병윤 氏 한의학관에 5천만 원

불교신자인 이병윤 씨가 일산의 생명과학캠퍼스 내 한의학관 건립 기금으로 5천만 원을 쾌척(快擲)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병윤씨는 이번 기부와 관련해 "식구 모두 불교신도이기에 동국대에 기금을 내놓게 됐다"며 "조금이 나와 동국대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외협력단에 따르면 이병윤 씨는 5천 만원의 기부 외에도, 일산병원 발전기금으로 2000년도에 1백만 원, 2002년도에 5백만 원 등 꾸준히 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역경원장에 무비 스님 취임



우리대학 역경원장에 무비스님(前 조계종 승가대학원장)이 지난 1일 임명(任命)됐다.

무비스님은 1958년 부산 범어사에서 여한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통도사, 범어사 강주, 조계종 승계대 학원장, 조계종 교육원장 등을 역임(歷任)했다.

한편 무비스님의 취임법회는 오는 7일 정각원에서 봉행(奉行)될 예정이다.

행정·외무·입법고시 1차 합격자 발표 1차 행정고시 합격자 수 작년대비 8명 증가

2010년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1차 시험에서 우리 대학 출신 합격자가 각각 20명, 2명, 2명으로 집계(集計)됐다. 이번 1차 행정고시 합격자 수는 작년 12명에 비해 8명 증가했고, 외무고시와 입법고

시 합격자는 전무(全無)한 상태에서 각각 2명으로 증가했다. 한편 2010년도 2차 행정고시 시험은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행정직 시험을 시작으로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기술직 시험이 있을 예정이다.

동악로에서

이지연 기자
lly88918@dgu.edu



무관심

새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총학생회를 비롯한 각 단과대 학생회는 예산을 편성(編成)받지 못했다. 학생회비를 승인(承認)하고 각 대표기구의 사업계획 및 회칙개정안을 심의(審議), 의결하는 기구인 총대의원회가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인우 총학생회장은 "예산이 지급받지 못해 지난해 이월 예산으로 학생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때문에 계획 중이었던 사업들이 차질(蹉跎)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총대의원회는 총학생회의 견제(牽制) 역할을 수행하는 독자적인 독립기구로 각 단과대별 대의원장이 선출된 후, 이들이 총대의원회를 구성(構成)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우리대학 11개 단과대 중 대의원장이 선출된 단과대는 불교대, 문과대, 법대, 사과대, 공과대까지 총 5곳 뿐이다. 나머지 6개 단과대에서는 대의원장 후보조차 나오질 않아, 총대의원회는 작년 12월 31일 이후로 계속 공석(空席)인 상태다.

양동석 전(前)총대의원장은 "지금까지 총대의원회가 세워지지 않아 새터 감사(監査)뿐만 아니라 예산 분배도 이뤄지지 못했다"며 "향후 상반기 감사 때까지 총대가 세워지지 않을 경우, 각 단과대별 예산 사용 내역의 투명성을 보장하기란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총대의원회 구성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이다. 학생자치기구의 존재 여부에 대해 모르는 학생들이 많을 뿐 아니라, 관심조차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예술대 A양은 "총대의원회가 예산 감사의 역할을 담당한다면 필요하겠지만, 별 관심은 없다"고 말했다. 또 사범대 B군은 "총대의원회와 대의원장의 존재 자체에 대해 처음 들어봤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인우 총학생회장은 "학생자치기구에 편성된 예산을 빨리 배분받아야 하지만 배분해 줄 기구가 없는데, 자치기구를 직접 세울 수도 없으니 이래저래 답답한 상황"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고, 고인 물이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새로운 물을 공급해주는 일이 필요하다. 물론 학생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선출된 학생대표자들이기는 하나, 자치기구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들을 견제하는 기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언제까지 자치기구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이 학내 사안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두고 볼 일이다.



제50주년 4·19혁명 기념 제41회 동국인 동산대회

1. 일시 : 2010년 4월 9일(금) 09:30 ~ 15:00
2. 장소 : 국립4·19 민주묘지(추모식), 북한산(등산대회)
※ 집결 : 지하철 4호선 수유역 5번 출구에서 셔틀버스 운행
3. 참가대상 :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등 모든 동국가족
4. 행사일정

행사내용	장소	시간	유의사항
4.19혁명기념 추모식	국립4.19묘지 기념탑	9:40~10:00	합동 참배
등산대회 출발	국립4.19묘지 광장	10:00~	
중식	대동문	12:00~13:30	
행운권 추첨	대동문	13:30~13:40	행운권 배부 (대동문 입구)
하산	도선사 방면	13:40~	쓰레기수거, 안전 유의
5. 단체별 신청 및 시상
가. 구성 : 지도 교수 2인 이상, 재학생 40명 이상으로 구성
나. 신청 : 4. 7(수) 까지 명단을 작성하여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
다. 상금 : 금상(50만원), 은상(30만원), 동상(20만원) 각1팀 선정
라. 심사기준 : 참여율, 4·19혁명 정신 계승(분향소 참배), 자연보호(쓰레기 수거), 협력도, 산행 예절
6. 공지사항
가. 4·19혁명 기념 추모식은 09:40분부터 합동 분향·참배로 진행함.
나. 우천 시에도 행사는 진행됨(우산 또는 우의는 개별 준비).
다. 대회 진행시 시간 엄수(출발, 중식, 하산 등)
라. 등산모자, 도시락, 쓰레기봉투는 각자 준비(개인별 수거 후 하산)
마. 참가자 전원에게 등산대회 기념품 지급.
바. 음식물 버림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에 유의.
사. 산행시 무리한 음주는 피하고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7. 문의 : 학사지원본부 학생서비스팀 (☎02-2260-3699)
8. 협찬 : 국가보훈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총동창회, 동국대학교 4.19혁명동지회

학 사 지원 본 부

연구 선순환 구조, 기술지주회사가 해답

원천기술 상업화로 대학재정 확충돼 학생에게 직접 혜택 돌아가게

우리대학이 최근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했다. 이로써 수익창출, 일자리창출, 연구 선순환 구조 확립 등 많은 기대효과가 발생 할 수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의미와 기대효과, 향후과제에 대해 모 색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우리대학이 지난 달 18일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대학보유 기술을 활용한 수익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대학 재정 확충(擴充) 및 대학 연구력 강화(強化)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우리대학 기술지주회사는 현재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수 기술을 산업계로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신규 수익 창출(創出)을 함으로써 연구와 기술 활용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기술지주회사 자본금 500억에 자회사 매출 1000억원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또한 기술지주회사 설립으로 연구 경쟁력 제고, 보유 기술 사업화, 신규 자원 확보의 연구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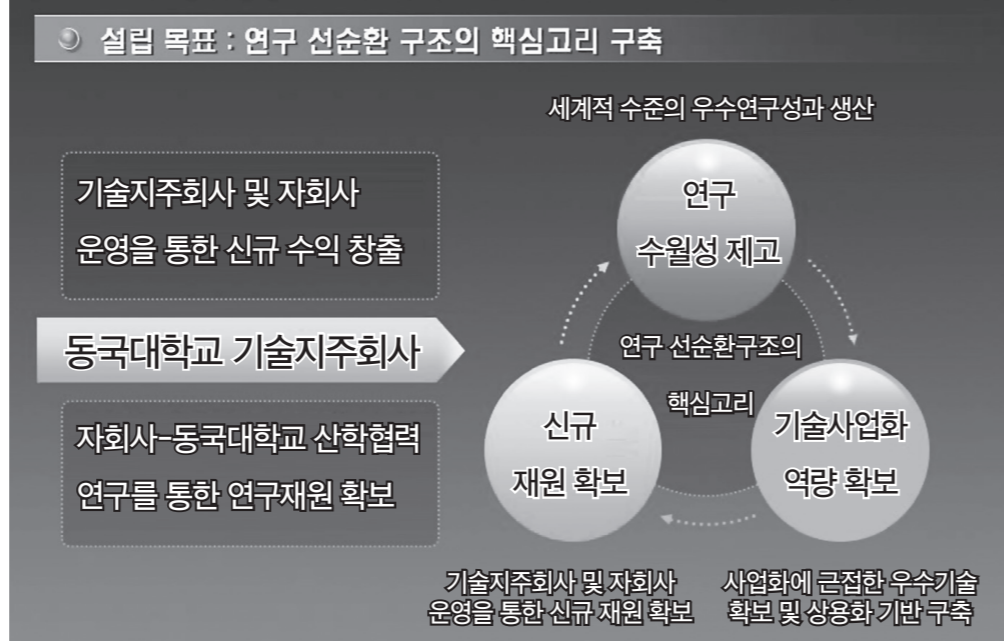
기술지주회사란?

기술지주회사란 일반적으로 대학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바탕으로 수익 사업화하는 지주회사를 뜻한다.

이는 지난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산업교육진흥과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산학법)'을 개정, 대학 산학협력단이 기술 및 현금을 출자해 대학 기술지주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능해졌다. 한양대가 법 개정 첫해인 2008년 1호 대학 기술지주회사를 출범(出帆)한데 이어 국내 대학 중 총 10개 대학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했으며 우리대학은 9번째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한 것이다.

각 대학의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바탕으로 앞으로 10년내 최대 30~50개의 자회사를 거느리는 그룹으로 성장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기술지주회사를 처음 설립한 한양대 및 고려대 등은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2020년까지 조 단위 매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대학들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에 대해 정부 또한 많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2015년까지 50여 개 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으로 완성된 연구 선순환 구조

기술지주회사 육성을 통해 일자리 1만개 창출 및 기술지주회사 자회사를 550여 개까지 늘려 총매출액 3조3000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로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대학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원 사업인 '커넥트코리아'의 2단계 사업이 개시되는 2011년부터 지원 예산을 현재의 연간 6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10여 개 대학 기술지주회사에 대학당 연간 5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해 현물 출자(出資)시의 기술가치평가, 자회사 출자기술의 기술사업화 검증, 회사 설립시의 전문기관 컨설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술지주회사의 의의

현재 우리대학이 상업화 아이템으로 내놓은 기술은 '다기능성 천연광물 가공 소재', '연(蓮) 관련 향산화 조성물', '통합자산 관리 시스템'으로 기술가치평가 결과 총 6억 8천만원의 가치가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만약 위와 같은 기술을 이용한 사업 및 검토중에 있는 기술들의 상품화가 이뤄진다면 연 매출 1000억의 목표 달성은 어렵지만 한 것은 아니라는게 우리대학의 입장이다.

한편, 우리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은 연구 선순환 구조의 핵심(核心) 고리를 구축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기술지주회사가 설립됨으로써 신규 수익이 생기면 연구 분야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수익의 창출과 여기에서 생긴 교

육재정이 우수 연구인력 확보 등에 쓰이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우수 연구 성과를 생산해 낸다면 '연구-수익사업-교육재정 확충-연구지원'으로 이뤄지는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즉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으로 자원 확보 및 우수 연구 성과 생산 및 상업화의 연구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는 것이다.

향후 과제

하지만 모든 전망이 장밋빛인 것만은 아니다. 우리대학의 경우 현재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한 타 대학과 비교하여 상품화할 특허 기술 수가 부족하다. 한 통계를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기술 1만 건당 3~4건만 상품화될 수 있다고 한다. 그렇기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기술 수가 많을수록 상품화 할 수 있는 품목이 늘어난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기술을 보유하고, 그 기술을 어떠한 상품으로 상품화 할 수 있는 가' 하는 문제는 기술지주회사 성공에 중요한 열쇠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 기술수가 부족한 우리대학의 경우 원천기술 개발이 이번 사업 성공의 중요한 열쇠이다. 또 상품화된 기술과 상품을 시장에 유통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 역시 기술지주회사 성공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다. 대학의 경우 연구능력과 원천기술 개발에는 뛰어나지만, 시장상황의 변동에 대한 대응력이나 마케팅 능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약점을 잘 극복할 수 있다면 연구와 기술개발 그리고 재정확충에 이르는 세 마리 토끼 잡기도 가능할 것이다.

이정민 기자 jeong0424@dongguk.edu

인터뷰 - 기술지주회사 유효상 대표이사

학생 모두 등록금 내지 않는 그날까지!



'동국대 기술지주 주식회사' 유효상 대표이사(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년까지 매출액 수백억대 달성이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그는 "기술지주회사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負擔)을 덜어주고 학교재정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기술지주회사라는 말이 낯선데 어떤 의미인가.

기술지주회사는 일반적으로 대학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사업화 하여 학교 재정 확립에 기여(寄與)하고 우수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대학 산학협력단이 자본금의 50%이상을 기술로 출자해 만드는 회사를 말하는 것이다. '동국대 기술지주 주식회사'는 지난 달 18일 우리대학 보유기술을 육성하고 상업화 해 수익(收益)을 창출하기 위해 총 10억원의 자본금을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출자 받아 설립됐다. 지금까지 총 10개 대학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했고 우리대학은 9번째로 설립하게 됐다.

- 우리대학 기술지주회사는 어떤 목적(目的)으로 설립되었나.

우선 수익창출을 하여 학교 재정에 보탬 되기 위해 설립됐다.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수 기술이나 앞으로 개발될 기술,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들이 아이디어 낸 기술, 외부인들이 우리 대학과 협력하여 비즈니스를 사업화할 수 있는 기술들을 활용해서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선정하여 사업을 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연구 성과, 수익 창출, 신규자원 확보라는 연구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 성과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그러한 수익을 신규재원에 재투자해서 새로운 연구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 앞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운영(運營)해 나갈 전략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단기적으로는 사업성이 큰 아이템을 선정하여 직접적으로 학교 재정에 도움을 주고 졸업생들의 일자리를 창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첨단, 하이테크 기술을 이용해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총무로 CT 클러스터와 고양시 메디클러스터를 활용하여 지역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자회사 인턴 자리를 많이 제공하고 회사가 성장해 독립하면 우선적으로 졸업생을 채용(採用)할 계획에 있다.

- 우리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이 총 6개로 알고 있는데 타대학과 비교해 그 수가 부족하다. 이 점에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특허가 많다고 해서 그 기술들이 다 사업화 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사업화해서 실질적으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기술 보유 여부다. 기술지주회사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존 산학협력단에서 보유하고 있던 기술들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공과대와 이과대 교수님들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발족해서 그 기술들을 선정하기위해 선별(選別) 작업 중이다.

이지연 기자 lly88918@dongguk.edu

Accelerating Innovation Cycle! 동국대학교 기술지주(주) 설립 기념 기술사업화 경진대회

기술의 사업화를 통한 대학 발전의 가속화!
동국대학교 기술지주주식회사 설립을 기념하여 기술사업화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아이디어·기술의 사업화 실현에 관심있는 동국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목적: 우수 아이디어, 발명기술, 비즈니스 모델의 발굴 및 평가를 통한 사업화 실현

■대회개요
- 참여자격: 우리대학 교·직원, 학부생, 대학원생(석박사, 연구원 등)
- 참여형태: 개인 및 팀 단위 참가 가능
- 대회기간: 2010. 4. 5 - 4. 30
- 주최: 동국대학교 기술지주주식회사
- 후원: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제
- 보유기술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방안
- 외부기관(기업, 정부, 지자체)과의 협력을 통한 사업화 방안
- 우리대학의 이미지, 역량, 브랜드를 통한 사업화 방안

■참여방법: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사항(일반공지)의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holdings@dongguk.edu로 발송
※ 양식은 각 사업 아이템의 특성에 따라 참여자가 수정할 수 있음

■시상내역
- 상금

구분	시상금
대상(1명(팀))	1백만원
우수상(2명(팀))	각 5십만원
장려상(5명(팀))	각 2십만원

- 수상자 특전
1) 예비기술창업자사업(중소기업청 주관) 우선 참여 및 지원
2) 미출원 기술의 경우 특허 권리와 지원
3) 기술지주회사를 통한 사업화 지원

■문의: 동국대학교 기술지주주식회사 (2260-3992)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동국대학교 기술지주(주) 대표이사

동 / 서 / 사 / 상 / 연 / 구 / 소

2010년 동서사상연구소 춘계학술대회

일 시: 2010. 4. 9(금) 13:30 ~ 18:00
장 소: 다량관 세미나실
사 회: 남정우(동국대)

- 차 례 -

- 발표(13:30 ~ 14:10)
전석환(경기대) "삶과 사회, 그리고 비판 - 막스 호르크하이머의 초기사상에 있어서 비판 개념을 중심으로"
- 발표(14:10 ~ 14:50)
권기환(동국대) "변증법적 인식의 교차점 - 헤겔의 변증법적 방법과 유학의 이기론 비교 연구"
- 발표(15:30 ~ 16:10)
김영진(경기대) - "A Phenomenological Consideration of Biological Intentionality"
- 발표(16:30 ~ 17:30)
Z. Iler(핀란드) "Kant on Form and Content in Cognition, A Reply to McDowell"

- 질문 및 토론(14:50 ~ 15:20)
- 휴식시간(15:20 ~ 15:30)
- 질문 및 토론(16:10 ~ 16:30)
- 질문 및 토론(17:30 ~ 18:00)

『철학·사상·문화』 제10호 논문 모집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는 2010년 7월 31일 발간되는 『철학·사상·문화』 제10호에 수록될 논문을 모집합니다. 『철학·사상·문화』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로, 모집 대상 영역은 철학, 사상, 문화입니다. 제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 제출 마감일: 2010년 6월 15일(화)까지
- 원고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ischoi@dongguk.edu 또는 bellkei@dongguk.edu)
- 원고 명기사항: 투고자의 성명(한글/영문), 소속, 주소, 전화번호
- 원고 제출 관련사항: 동서사상연구소 홈페이지(http://ins-ewt.dongguk.edu/)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채택된 논문은 2010년 7월 31일 발간 예정인 『철학·사상·문화』 제10호에 수록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동서사상연구소(교내 8838) 또는 연구소 조교 박영식(019-629-166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숨결 담긴 원색의 파노라마

사석원 동문 '하쿠나 마타타' 개인전, 가나아트센터서 18일까지



▲하쿠나 마타타-왕의 귀환(왼쪽 위) 유채에 캔버스, 195x120cm, 2009 ▲하쿠나 마타타-여명의 코끼리(왼쪽 아래) 유채에 캔버스, 163x120cm, 2008 ▲'일생평안-수치침' 작품을 아이들에게 설명중인 사석원 작가의 모습 (오른쪽)

물감이 채 마르기도 전에 작품이 모두 팔려 일명 '완판남'으로 불리우는 화가가 있다. 그는 바로 요즘 화랑가에서 스타작가로 통하고 있는 우리대학 한국화과를 졸업한 사석원 작가이다. 2007년 금강산을 주제로 한 '만화방창' 전 이후로 그는 3년 만에 '하쿠나 마타타'(Hakuna Matata)라는 새로운 주제로 우리에게 찾아왔다.

아프리카의 인생, 현란한 색채로

지난 26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서울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리는 그의 개인전의 주제인 '하쿠나 마타타'는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라는 뜻의 아프리카 스와힐리어다.

제목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그의 화풍은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작가의 격려와 치유, 그리고 희망이 담겨있다. 더불어 개인전의 대부분의 그림들은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는 1999년 이후 아프리카를 수시로 방문했다고 한다. 끝이 안 보이는 사막을 느릿느릿 걸던 거북, 강을 건너던 짐승 무리들이 약어들에게 잡히는 야생성을 관찰하며 그는 작품에 대한 영감을 받았다.

"생존의 위기에 놓여있는 야생동물들을 보며 그들도 인간과 같은 고민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는 그의 작품 속에는 탄자니아, 케냐,

에콰도르에서 동물들과 영감을 주고받은 흔적이 그대로 묻어났다.

정글 속 이방인을 그리다

이번 개인전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합작으로 이뤄진 '왕의 귀환'이 있다. 과연 한국사회에서 가장 고통 받는 이, 그리고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받았으면 하는 이는 누구일까를 고민하던 그는 외국인 노동자를 떠올렸다.

그래서일까 '왕의 귀환'이란 작품 속에는 그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드러나 있는 듯하다. 동물과 사람이 어우러진 낙원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화려한 캔버스 곳곳에는 한자, 베트남어, 아랍어, 방글라데시어 등 온갖 언어들이 숨어 있다. 이는 2007년 말부터 인천 남동공단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화폭 위에 모국어로 짧은 글을 써달라고 직접 발품을 판 결과물들이다. 이와 같이 이번 전시회에서 사석원 작가와 외국인 노동자의 합작으로 이어지는 작품은 약 50여 개에 이른다.

캔버스 대신 칠판 속에 담긴 희망

한편 이번 전시의 가장 큰 특징은 캔버스 대신

칠판 위에 그림을 그렸다는 점이다. 칠판작업은 이번 전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그는 칠판의 장점으로 내구성을 꼽았다.

천으로 만들어진 캔버스는 두터운 물감을 뿌리다 보면 쉽게 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캔버스에 쓸 수 많은 칠판들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주문한 칠판이 도착하기까지 공백이 생겨 작업하던 도중 흐름이 끊긴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그는 토로했다.

그는 칠판이라는 독특한 소재를 사용하게 된 동기에 대해 "칠판은 누구나 돌아가고 싶은 어린 시절 추억의 만능공통어다"라고 칠판에 그린 이유를 설명했다.

어린 시절 소심했던 성격 탓에 말문을 열지 못하고 틀린 나뉨 종이에 그림을 그려 세상과 소통했다는 그는 1980년대 중반 우리대학 한국화과를 졸업했다. 이후 프랑스 파리 8대학에서 유학 시절 겪은 현재 급부상한 스타작가로 통한다. 전시도 열기 전에 주문이 쇄도한다는 그는 다음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하쿠나 마타타, 우리는 다 잘될 겁니다" 봄이 움과 동시에 그의 작품들은 지금 삶에 지친 모든 이들에게 따스한 응원의 메시지를 건네고 있다.

백선아 기자 amy@dongguk.edu

매체비평

MB정부와 주요언론의 보도행태

비이성 강요하는 보수언론



김경호 단국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조선 10건, 중앙 8건, 동아 8건, 한겨레 117건, 경향 93건. 이는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지난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이들 주요 신문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의 뜨거운 현안인 4대강 난개발 사업과 관련한 기사량을 정리한 수치이다. 조선 17건, 중앙 8건, 동아 27건, 한겨레 58건, 경향 75건. 이는 같은 조사에서 오는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주요 의제로 떠오른 무상급식 관련 기사량을 분석한 수치이다.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기사의 분량도 분량이지만, 더 큰 문제는 조중동이라는 신문에서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정책과 관련, 현재의 집권세력에 불리한 수 있는, 비판적 문제제기를 담는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한편 6월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올 3월 한 달간(3월 1~27일), 조·중·동 3개 신문의 1면 기사를 2006년 3월 시점과 비교분석한 경향신문 보도는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기사 비중이 4년 전인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의 40%대에서 지금은 10%대로 크게 줄어들었음을 보여주었고 있다.

이런 민감한 사회적 이슈는 외면하면서 현 정부에 유리한 여론조성을 위해 이들 신문이 축소와 은폐 등의 방식을 동원하고 있다는 향간의 지적을 증언하는 기록이다. 이들 신문 뿐 아니라 SBS를 포함하여 이명박 정권이 온갖 무리수를 동원하면서 집요하게 통제하고 있는 KBS나 MBC 같은 주요 방송사 역시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함은 물론이다.

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언론이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다양한 정보와 비판, 문제제기를 통해 사회전체의 이성적 논의의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의 합리적 발전을 도모하는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의 다양성, 여론의 다양성, 이념의 다양성 같은 것이 언론이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이며, 또 그러한 가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미디어 체제를 다지는 정책이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다.

언론이 그러한 역할수행을 포기하거나 역행할 때, 또 그러한 정책체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민주주의는 질식하며 사회는 결국 비이성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그럼에도 조중동 같은 신문은 자신은 물론, 이들이 그토록 보위하고자하는 현재의 집권 보수 세력, 나아가 우리 사회 성원 모두의 패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비이성적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해군 초계함 침몰사건을 신뢰할 만한 근거도 대지 못한 채 어떻게든 북한과 연결짓고자 하는 조선·동아 등의 보도태도는 몰지각한 행태의 또 다른 극치이다. 이들을 견제하지 않는 한 우리 사회는 더 깊은 비이성의 수렁에 빠지면서 미래에의 희망과 동력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보수언론, MB정부 들어 정부·여당 비판 기사 40%에서 10%로 급감”

백선아 기자 amy@dongguk.edu

2010학년도 1학기 제1차 강의평가 실시 안내

2010학년도 1학기 제1차 강의평가 실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실시기간 : 2010.3.29(월) 10시 ~ 4.7(수) 24시까지
 - 평가문항 : 기본문항 + 6문항(5점 척도) + 건의사항 7문항
 - 학생참여방법 : 홈페이지(서울캠퍼스)- uDrims - 로그인 - 학사정보 - 교과수업 - 강의평가관리 - 강의평가등록
 - 기타사항
 - 가. 교내·외 장학생 선발시 참여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 나. 모든 해외연수 장학 선발시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 북미주 총동창회 초청 해외연수, 동국해외탐방, 총무역사탐방 등
 - 미참여자는 교내 장학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모범장학금(1차 또는 2차강의평가 중 1회라도 미참여자), 강좌별 수석장학 및 영여강의장학(1차 또는 2차 또는 3차강의평가중 1회라도 미참여자) 신청 불가
 - 강의평가는 학사행정 및 강의의 질 향상을 위한 자료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미참여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강의평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학생여러분들의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마. 강의평가는 uDrims 서버작업관계로 12시-13시, 20시-21시, 24시-01시에는 참여하실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강의평가에 대한 학생정보는 누출될 수가 없으며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학 사 지 원 본 부

2010년도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공고

- 훈련 대상 : 대학 직장 예비군에 편성된 자
 - ※ 전역 1-6년차 예비군 ('2009년도 ~ '2004년도 전역자)
- 훈련 일정

구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일정	4.13(화)	4.14(수)	4.27(화)	4.28(수)	4.29(목)	4.30(금)	6.18(금)
대상	-법과대 -이과대 -경주캠	-사과대 -예술대	-건축(공학전공) -기계 로봇 -에너지 공학과 -기계/토목과 -전기공학과 -생명화학과 -화학 생물 공학과	-전자공학과 -사회 환경 시스템공학과 -사범대	-불교대 -산업시스템 공학과 -정보통신공학 전공 -컴퓨터공학과 -바이오시스템 -교직원	-경영대	-대학원 -문과대 -영상미디어대
- ※ 각 단과 대학별 또는 학교별로 통합되거나 변경된 대학 및 학과는 입학 당시의 대학 또는 학교의 훈련 일정에 참석하면 됩니다
- 훈련 장소 : 56사단 219연대 중로 - 중구 훈련장
- 복 장 : 예비군복 (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고무장, 허리띠)
- 휴대품 : 신분증, 필히 지참(주민등록증, 학생증, 면허증 등)
- 참고 및 유의 사항
 - 가. 교육훈련은 09:00에 시작하여 18:00에 훈련 종료
 - 나.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1번 출구로 나와서 북한산 방향으로 200m 지점에서 34번 또는 704번 버스탑승(08:30 이전까지 버스 탑승부대 지연 도착자 입소불가)
 - ※ 지하철과 버스 환승제도 시행에 따라 훈련 전용버스 미 운행
 - 다. 훈련종료 후 국방부에서 훈련보상비(식대비 및 교통비:9,000원) 지급
 - ※ 훈련 간 학생들의 자기양양을 위해 학교에서 중식지원
 - 라. 개인 자가용 운행가능(주차장 완비)
 - 마. 예비군복 중 1가지라도 미착용 또는 불량자는 입소불가
 - 바. 본인 훈련 일정 아닌 날에 훈련참석시 훈련 미 인정
 - 사. 기타 훈련관련 개인명단 확인 등 상담 필요시 예비군 연대본부 문의 (예비군 연대본부 : ☎ 2260 - 3047 ~ 8)

*** 훈련전일 지나친 음주는 가급적 자제 ***
동국대학교 직장예비군 연대

2010 “정외인의 날” 초청장

친애하는 정치외교학과 재학생 여러분!

우리는 정치외교학이라는 학문의 바다 위에 때로는 잔잔하며, 때로는 풍랑이 이는 파도를 '정외인(政外人)'이라는 이름의 동료 선원이자 가족으로서 함께 항해하고 있습니다.

2010년 새 학기를 맞이하여, 신입생 및 신규 전공결정자를 환영함과 더불어 스승과 제자, 선·후배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인연을 확인해보는 자리로써 아래와 같이 2010년 “정외인의 날”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정치외교학과 재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0년 4월 8일 오후 6시 30분부터
- 장소 : 상록원 3층 교직원 식당
- 회비 : 없음.

정치외교학과 교수 / 강사 / 학생회 일동

“Only One 전략으로 세계의 하늘을 노린다”

이스타 항공 설립해 국민 CEO로 자리매김한 이상직(경영89졸) 동문

자랑스런 동국인을 찾아 < 3 > 이스타 항공 CEO 이상직 동문

‘텐배거(Ten Bagger)’라는 말을 알고 있는가?

야구에서는 2루타를 치는 것을 ‘Hit a Two Bagger’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텐배거는 말 그대로라면 10루타를 의미할 것이다. 하지만 텐배거라는 말은 야구보다는 주식투자자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된다. 투자자에게 10배의 수익률(收益率)을 안겨주는 대박 종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텐배거는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꿀 수익률이라 할 수 있는데, 항공 업계에서 ‘Only One’ 전략으로 텐배거를 이뤄낸 사람이 있다. 그는 바로 이상직(경영89졸) 동문이다.

‘Only One’ 통한 성공신화

이상직 동문은 현재 이스타항공을 경영(經營)하는 CEO의 위치에 서있다.

이스타항공은 ‘짜릿한 가격으로 추억을 파는 국민항공사’라는 구호(口號)를 내건 국내제일의 저비용항공사이다. 실제로 이스타항공은 지난 2009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서비스만족도에서 1위를 달성(達成)했을 뿐만 아니라 탑승률 1위와 수송실적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저력(低力)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스타항공의 성공은 이상직 동문이 평생을 마음속에 담고 지켜온 경영철학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그의 경영철학은 ‘Only One’과 ‘차별화’ 전략이다. 이에 대해 그는 전자는 ‘잘하는 것 한 가지를 파고들어서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創造)하는 것’이고, 후자는 ‘남들과 다른 차별성을 모색하면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도전정신을 매우 중요시하는 경영인이다. 몇몇 항공사가 독과점하는 시장을 뚫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다.

하지만 이상직 동문은 독과점 제도가 토착화돼있는 구조적 모순(矛盾) 속에서도 무모하리만큼 계속 도전했고, 결국 이스타항공을 서비스 만족도 1위의 ‘국민항공사’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의 도전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위기를 극복해내는 것이 중요

이상직 동문은 “경영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다”라며 “수많은 질곡(桎梏)과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들이 오롯이 내 가슴속에 살아 숨 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가업(家業)은 나전칠기 재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60년대 초반에 선친(先親)이 시작한 사업이었다. 전국 시장을 거의 독점할 정도로 번창(繁昌)했지만 80년대 가구 시장흐름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그는 대학생 시절 차비나 식비가 없어 학교를 가지 못한 날이 있을 정도로 가난했다. 이렇듯 가업이 무너져 허덕이던 그에게 같은 학교 선배의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이유가 있다”는 말은 가슴에 상처가 됐고, 그는 이를 악물고 꼭 성공하리라 다짐했다.

그는 이후 20년의 구체적인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계속 노력해왔다. 이상직 동문은 “그때 그 선배가 미워 비난했지만 그때의 다짐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다”라며 “지금은 오히려 그 선배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선을 다해 배운 경영철학

그는 대학 졸업 후 현대증권에 입사(入社)했다. 그러나 증권시장은 그에게 쉽게 성공의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상직 동문은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며 투자에 관한 공부를 기초부터 다시 시작했고, 선배들이 말하는 것까지도 놓치지 않고 연구했다. 또한 그는 증권투자와 관련해 이름난 ‘고수’를 찾아가 배움을 청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워렌 버핏과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의 강연에 참여하게 됐고, 두 명사만의 ‘투자철학’과 ‘경영철학’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는 그가 지금 이스타항공을 경영하는데 큰 밑거름이 됐다고 한다. 이상직 동문은 “도전정신을 강하게 외치는 정주영 회장의 강연을 들으며 열정과 도전정신을



키웠고, 워렌 버핏의 강연을 통해서도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치투자’ 법을 배울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국민항공사의 국민CEO

이상직 동문은 후배들에게 “비전을 가지라”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불가능할 것 같은 꿈도 비전을 명확히 설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에게만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동국대는 오랜 역사와 큰 중단을 지닌 잠재력(潛在力) 있는 학교”라며 “후배들이 학교에 대한 자긍심(自矜心)을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이 세계적인 No.1 항공사가 되는 것이 목표라는 이상직 동문. 또한 그는 젊은이와 중소기업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경영인이 되고 싶다고 한다.

가격 거품을 없애 항공의 대중화에 기여(寄與)한 이스타항공과 이상직 동문은 이미 국민항공사와 국민CEO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남다른 도전정신과 열정을 가슴에 품은 이상직 동문에게, 이스타항공이 대한민국의 하늘을 넘어 세계의 하늘로 뻗어나갈 날이 그리 멀지 않은 듯하다.

이슬비 기자 beeya@dongguk.edu



프로필

▲1963년 전북 김제 출생 ▲1989년 동국대 경영학과 졸업 ▲1989년 현대증권 입사 ▲2001년 케이아이씨 사장 ▲2006년 케이아이씨그룹 총괄 회장 ▲2007년 이스타항공그룹 회장 취임 ▲중앙대 객원교수 ▲전북대 초빙교수

옛 시에 취해 세상을 보니, 강물은 이름을 잃었구나!

선시禪詩 연구의 개척자 소식素石 이종찬李鍾燦 선생의 취선법醉禪法

온갖 냇물이 다 제 나름의 이름을 가지고 물을 뚫어 흐르다가 결국에는 바다로 드는데, 바다로 들고 가면 지금까지의 이름을 잃고 만다. 그저 바닷물이지 한강 물, 낙동강 물이 아니다. 결국은 큰 품안으로 안기고 마는 것이다. 아무리 큰 육지의 물이라도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기처럼 포근하게 안기어 바닷물이 되고 만다. 이를 강수실명江水失明(강물은 이름을 잃다)이라 한다.



마음의 발견 2

<마음의 발견> 시리즈는 현대인의 마음에 동행이 될 미래 콘텐츠입니다.

천방지축 개구쟁이 스님의 솔직담백한 선방 이야기!

선객에서의 법광 스님에게선 엄숙함보다는 개구쟁이 같은 천진함이 느껴진다. 속세의 찌든 때는 오래전에 모두 벗어버린 듯 마냥 순수하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같은 느낌의 글과 사진들로 읽는 내내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다. 어머니처럼 챙겨주시던 비구니 스님의 입적과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하고 몇날 며칠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는 스님의 솔직한 고백에서도 진솔한 성품이 전해져온다. — 일러던 독자 서평(나이스가이)



마음의 발견 1

4×6판 양장본 | 256쪽 | 값 10,000원

0212260-3483, 2264-4705 동국대신문



우승 위해선 피나는 개인훈련도 마다 않는다

2010 회장기 전국대학야구 춘계리그전 앞둔 야구부 집중취재

①

전국 32개 대학야구팀이 출전(出戰)하는 ‘2010년도 회장기 전국대학야구 춘계리그전’이 지난 29일 개막했다. 이번 대회는 올해의 대학 야구 판도를 점칠 수 있는 첫 대회로 큰 의미가 있다. 우리대학 야구부는 2007년 이 대회에서 준우승했다. 야구부 사상 최상의 전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올해에는 우승(優勝)에 도전한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대학 야구부 선수들의 훈련과 숙소생활을 기자가 밀착취재했다.

실전같은 연습…긴장된 표정 역력

3월 26일 오전 11시

상무와 야구부 간의 경기를 참관하기 위해 지난 달 26일 성남에 있는 국군체육부대를 찾았다. 선수들은 상무 팀과의 연습경기를 앞두고 훈련(訓練)에 집중하고 있었다. 경기장에서는 타격(打擊)훈련이 이뤄졌다. 연습 타석에 들어선 선수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과속볼, 멀리서 코치의 함성소리가 들려온다. “다음!” 선수의 눈에 아쉬움이



③

묻어낸다. 그 뒤로 선수들이 한 줄로 늘어서 각자 타격자세를 연습하느라 바쁘다. 선수들끼리 타격자세에 대해 조언을 해주기도 한다. 덕아웃 오른쪽에서는 포수(捕手)를 위한 맞춤형 훈련이 진행된다. 연습상대가 던져주는 공을 잡기도, 막아내기도 한다. 선수들 사이에서는 “오른쪽으로 치우쳤어!”, “중심 잘 잡아”라며 진심어린 충고가 오고간다.

3월 26일 오후 12시

점심시간이 되자 경기장 여기저기서 훈련에 매진하고 있던 선수들이 덕아웃으로 몰려들기 시작한다. 1학년 선수들은 선배들의 식사 준비를 돕느라 여념이 없다. 선배들의 식사 준비가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한 1학년 선수는 “괜찮아요. 형들도 1학년 때 다 했는걸요”라며 웃는다. 오늘 선수들에게 제공된 점심식사는 김밥. 고된 훈련 속에 김밥이라는 메뉴가 아쉬울 법도 한데 다들 “최고예요”라며 맛있게 먹는다. 선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동안 김학용 감독이 덕아웃으로 들어왔다. 김학용 감독은 “동계훈련이 워낙 고됐기 때문에 나도, 선수들도 우승에 자신이 있습니다”라며 일주일 뒤 열리는 대회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몸 상태가 완전히 올라오지 않은 선수들이 몇 명 있긴 해요”라며 “이번 주말과 다음주 연습경기를 통해 최대한 끌어 올릴 겁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점심식사를 마친 선수들은 바로 훈련에 돌입한다. 점심식사 후에는 투수훈련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오늘의 선발투수인 노성호 선수에게 김석기 코치의 개인 지도가 이어진다. “손을 더 쭉 뻗어!”, “다리 더 올리고!”라며 코치의 훈계가 계속된다. 코치의 지도가 계속될수록 노 선수의 얼굴은 땀범벅이 된다.

경기시작 3분 전

모든 선수들이 감독 앞에 모인다. 감독은 “지금까지 열심히 훈련해왔던 만큼 최선을 다하자!”고 선수들을 격려(激勵)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선수들의 하이파이브!

선발이 결정된 선수는 경기장을 향해 나가고, 남은 선수들은 덕아웃에서 경기를 승

죽인 표정으로 지켜본다. 경기를 지켜보던 1학년 고영표 선수는 “어서 형들처럼 경기에 나가서 동국인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라며 작은 소망을 전했다. 생각보다 경기가 잘 풀리지 않자 김 감독의 눈에는 고뇌의 흔적이 엿보인다. 비록 이번 상무와의 연습경기는 패했지만 아마추어 최강인 상무와 연습경기를 통해 보완점을 발견했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훈련과 경기를 모두 마친 선수들의 모습은 어떨까. 금강관에 위치한 숙소를 기습 방문했다.

팀훈련, 개인연습 끝없이 이어져

3월 29일 오후 6시 반

금강관 207호 앞. 방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급히 치우는 소리가 들린다. 곧 방문을 열어준다. 방안에는 선수들 각각의 옷장, 프로야구가 중계되고 있는 텔레비전, 경기 후 몸을 풀 때 이용하는 마사지 베드가 있다. 선수들은 보통 숙소에 있는 시간이 길지 않지만 숙소에 있을 때 텔레비전을 보며 경기나 훈련 때 받았던 스트레스를 푼다. 또는 같은 방을 쓰는 선수들끼리는 서로 장난을 치며 놀기도 한다.

3월 29일 오후 6시 40분

오후 7시부터 있을 개인 자유 훈련을 취재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아직 7시가 되지 않은 시각인데 한 선수가 타격연습장에 나타났다. 바로 팀 내에서 연습벌레라고 불리는 2학년 김동영 선수다. 공식적인 훈련이 시작되는 7시부터는 선배들이 연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나와서 연습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김 선수는 바닥에 흩어져 있던 공들을 바구니에 담더니 그 공을 하나씩 타격연습대에 올려 치기 시작한다. 금강관 옆을 지나가던 학생들은 타격소리에 놀라 다들 김 선수를 힐끗힐끗 쳐다본다.

7시가 되자 선수들이 하나, 둘씩 모습을 나타냈다. 남산으로 체력훈련을 하러 가는 선수, 타격연습장에서 타격을 하기 위해 기다리는 선수, 근력운동을 하기 위해 헬스장



②

으로 향하는 선수. 다들 가지각색이다. 블라디미르 게레로 같은 홈런왕이 되고 싶다는 3학년 위준호 선수는 타격훈련을 선택했다. “한 번 할 때마다 200개 정도의 공을 쳐요”라며 “연습타격을 많이 할수록 실제 경기에서 타격감이 높아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고 말하는 위 선수의 눈빛에서 홈런왕을 향한 의지(意志)를 느낄 수 있었다. 체육관 안에 있는 헬스장에서는 선수들이 걸그룹의 노래에 맞춰 신나게 훈련을 하고 있었다. 거울 앞에서는 손수건을 든 투수들이 피칭연습을 하고 계속해서 웨이팅 훈련을 한다. 한 세트의 훈련마다 서로에게 “야자”라며 파이팅을 외쳐주는 선수들.

동국인들 뜨거운 관심 필요

대회가 열리는 군산으로 떠나기 전날 밤. 선수들 모두 사뭇 긴장된 마음으로 짐을 챙긴다. 선수들 모두 “매번 하던 건데...”라면서도 2010년 첫 대회나 만큼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는다. 1학년 정우민 선수는 “아직 1학년이라 경기에 출전할 수는 없지만 형들이 잘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라며 머쓱해한다. 또 4학년 조정민 선수는 “선수들이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 있을거예요”라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주장(主將) 김동한 선수는 “힘든 동계훈련을 이겨냈기 때

문에 현재 선수들 모두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예요”라며 “2010년 우리의 첫 대회만큼 좋은 시작이 됐으면 좋겠어요”라고 우승에 대한 각오를 전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만큼 야구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세요”라고 동국인들에게 당부의 말도 잊지 않는다. 첫 경기가 있는 군산으로 떠나기 직전. 선수들 모두 체육관 회의실에 모인다. 모자를 들고 있는 모습에서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체육실장, 체육부장, 야구부 코치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회장기 전국대학야구 춘계리그전’을 앞둔 야구부의 출정식이 열린다. 백경선 체육실장은 “하나가 되어 모두들 열심히 훈련한 것 같다”고 “이번 대회가 2010년도 첫 대회인만큼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선수들을 격려한다. “필승(必勝!)”을 외치는 선수들 눈에서는 승리에 대한 의지가 반짝인다. 이제 우승을 향해 출발!

에필로그

지난 4월 2일 군산 야구장에서 탈라대와 첫 경기를 가진 우리대학 선수들은 5대 0으로 완승을 거뒀다. 앞으로 진행될 경기에서도 승승장구해 이번 대회에서 우승할 야구부를 기원해 본다.

최진아 기자
gina@dongguk.edu



④



⑤

① 야구부 선수들이 상무와 연습경기를 하고 있다. ② 김동영 선수가 타격 훈련장에서 나흘로 타격훈련에 여념이 없다. ③ 투수들이 헬스장에서 손수건을 들고 걸 그룹의 흥겨운 음악에 맞춰 피칭 연습을 하고 있다. ④ 야구부 주장 김동한 선수가 출발 전날 밤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챙기는 모습. ⑤ 선수들이 출발 전 한 마음으로 필승을 다짐했다.



김선희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시론

차별 없는 행복의 밥상을 차리자

요즘 무상급식 논란이 뜨겁다. 저소득층 낙인(烙印)찍는 차별급식이나, 헌법이 보장한 '무상교육'의 완성이나를 두고 정치권의 논쟁이 한층 달아올랐다. 아이들 밥 먹는 문제가 이렇게 정치사회의 주요 쟁점이 되기는 처음인 것 같다. 2200여개의 시민사회·풀뿌리 단체가 모여 친환경무상급식을 요구하고 나섰다. 무상급식은 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락을 결정할 주요 핵으로 부상한 것이다.

그런데 급식의제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치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것처럼 정치공세가 대단하다. 포퓰리즘이니, 사회주의 정책이니 색깔논쟁부터 국가재정 파탄설에 부차급식 논란까지 일고 있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여당 정치인들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정치적 수사들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80~90%이상의 무상급식 찬성률이 이를 증명해 보이고 있다.

'부자집 아이들까지 급식을 공짜로 줘야 하나?'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헛갈린다. 그

므로 더 가난한집 아이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면 일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정부여당이 무상급식은 부차급식이라며 공격하는 것도 이것에 근거한다. 최근 당 정책회의에서 발표한 초·중등 무상급식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을 조금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骨子)를 이룬다.

하지만 무상급식의 취지는 학교안에서의 차별급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낙인효과'나 '차별의 내면화', '양파' 같은 비교육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자는 것인데 이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거의 없어 보인다. 무상급식을 '공짜밥'으로만 취급하는 현 정권의 천박한 인식만 드러냈을 뿐, 급식이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을 간과(看過)했다. 현재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급식비 지원을 차상위계층 120%에서 180%로 늘리고 97만명에서 200만으로 늘린다면, '공짜밥' 먹는 아이들은 늘 것이다. 그러나 그만큼 낙인받고 상처받는 아이들이 같이 늘어남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새 학기 3월이면 급식비 지원을 받아야 하

는 저소득층의 아이들은 '나는 가난합니다'라는 증명서로 담임선생님과 첫 대면을 하게 된다. 부모의 소득 증명서에 이혼증명서는 기본이고 이런 대상이 되지 못할 경우는 아이가 직접 부모의 실직증명서나 신용불량 증명서 등 급식비를 낼 수 없는 사정을 시시콜콜 증명해 보여야 한다.

아이는 가난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무슨 죄인이라도 되는 양 자존심과 자신감을 한 순간 잃게 된다. 성장기 예민한 시기,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점심 한 끼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다.

급식은 교육이다. 또한 교과서처럼 교육의 중요한 교재이기도 하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의 내용까지 들먹이지 않아도 학교 안에서 만큼은 부모의 빈부격차와 상관없이 우리 아이들 행복하고 자신 있게 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는 국가존립의 가장 근본을 세우는 일이며, 우리 아이들과 교육복지에 대한, 그리고 미래 희망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메아리
이정민 기자
jeong0424@dongguk.edu

'비구 법정'이 남긴 것

▲'우리들의 소유(所有) 관념이 때로는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한다. 그래서 자기의 분수(分手)까지도 돌볼 새 없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 이 육신마저 버리고 훌훌히 떠나갈 것이다. 하고 많은 물량일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내 삶을 돌아볼 때마다 가장 후회(後悔)스러운 것은 더 가난하게 살지 못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한 부분이다." 이는 법정스님의 '무소유'에 나오는 한 구절,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이 생전에 남긴 말이다. 이는 베푸는 것 보다는 소유의 노예(奴隸)가 된 현대인들에 대한 가르침이 담긴 말이다. ▲오는 7일 고(故) 김수환(스테파노) 추기경의 사랑과 나눔 정신을 이어갈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창립(創立)행사를 열고 공식 출범(出

帆)할 계획이다. 김수환 추기경 추모 1주기를 맞아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공식 설립하는 '바보의 나눔' 재단은 개인 및 단체, 기업을 대상으로 모금을 받아 종교·지역·이념에 관계없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비록 작지만 희망(希望)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소유하기에만 급급한 현대 사회에서 이와 같은 사업은 현대인들의 귀감을 살만한 일이다. ▲법정 스님이 입적하면서 "내 책을 절판하라"라는 유언(遺言)을 남겼다. 입적(入寂)을 앞두고 그 어느 것 하나 소유하려 하지 않은 이 유언은 평소 무소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법정 스님다운 유언이다. 하지만 스님의 가르침과는 달리 법정 스님의 유언은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너도 나도 희소가치(稀少價値)가 생긴 법정스님의 서적을 구매하기 위해 혈안이 됐다. 결국에는 정

가 6,000원인 법정스님의 대표작 '무소유'가 십 수만 원의 가격에 이르는 사태까지 이르게 됐다. 이렇듯 현 사회는 나누기, 베풀기보다 소유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태는 대학가에서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경력 쌓기에만 급급할 뿐, 주위를 둘러볼 여유 따윈 대학가에서 사라진지 오래다. 결국 우리들은 소유의 노예가 되고 있을 뿐이다. ▲우린 더 이상 소유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자신의 경력(經歷)을 쌓고, 자신의 입지(立地)를 다지고, 자신을 위한 기반(基盤)을 마련하는 것들도 모두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에만 치중하다보면 정작 중요한 많은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법정 스님의 말처럼 이젠 소유의 노예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돌봐야 할 때이다.

사설

김예슬 선언과 대학

고려대 경영학과 3학년 김예슬 양이 쓴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라는 제목의 공개 자퇴 대자보가 대학사회에 큰 반향(反響)을 불러일으켰다. 치열한 입시경쟁을 뚫고 유명대학에 입학했던 김 양은 그러나 세상의 그릇된 의식에 저항하며 잘못된 대학에서 스스로 대학을 거부했다. 김 양이 자퇴선언을 한 지 근 한 달이 다 됐지만, '김예슬 선언' 카페를 비롯해 인터넷 상에서는 김예슬 선언에 대해 각종 논쟁이 벌어졌다.

김 양은 대자보를 통해 이 땅에서 대학생으로, 20대로 제대로 살아가 얼마나 힘든가를 비감(悲感)하게 드러냈다.

그녀는 자신과 친구들이 끝을 모르는 트랙을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인간 제품'이 되고 있다고 고백했다. '친구들을 제치고 넘어뜨린 것을 기뻐하면서, 나를 앞질러 달려가는 친구들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며 동참하는, 스스로 배반하는 삶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의 청춘은 '꿈을 찾는 게 꿈이어서 억울'해하고, '이대로 언제까지 쫓아가야 하는지 불안해서 서글프다'고 했다.

김 양은 20대를 '인간제품'으로 만든 이유로 몇 가지를 꼽았다. '인간제품'의 삶을 내면화한 20대 자신이 한 가지 이유다. 자격증 브로커로 전락한 '큰 배움(大學)이 없는 대학', 초·중·고생을 말 잘 듣는 '인간제품'으로 키워 대학에 납품하는 국가, 대학을 부품화(部品化)체로 여기는 기업, 그리고 격정을 하면서도 거짓 희망을 강요하는 기성세대가 공모(共謀)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G세대 혹은 88만원 세대라 불리는 20대를 투자대비 수익이 나오지 않는 '적자세대'라고도 표현했다.

김 양은 개인적 자퇴 결정으로 이처럼 거대한 탐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공부만 잘하면 모든 걸 용서받고 경쟁에서 이기는 능력만 키우라는 세상에서 더 이상 공범(共犯)으로 남기를 거부하고 대학을 뛰쳐나온 것이다.

김 양의 대자보 내용대로 요즘 20대 들에게 현실은 너무 험하다. 치열한 입시경쟁을 거쳐 대학에 들어가도 취업문을 뚫기 위한 무한 경쟁이 기다린다. 치솟는 등록금이나 필수 과정이 되다시피 한 해외연수 비용과 같은 경제적 부담도 가혹(苛酷)하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가 최저 노동조건도 보장되지 않은 아르바이트 전선으로 내몰린다. 심지어 근로 장학생이 되기 위해 누가 더 가난한지 보여주는 경쟁도 벌어져 왔다. 학생들은 털어놓는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젊은이들의 현실은 더 가혹하지만 눈길조차 받지 못한다.

김 양은 자퇴가 상품으로 '간택(簡擇)'되기보다 인간의 길을 '선택(選擇)'하는 삶을 살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대학답지 못한 대학을 스스로 거부함으로써 '진정한 대학생의 첫 발'을 내딛는다고도 했다. 김 양의 선택은 동 세대에겐 꿈은 누가 꾸라고 던져주는 것이 아님을 행동으로 보여줬다. 무엇보다 김 양이 던진 화두(話頭)를 깊게 반성해야 하는 것은 대학이다.

지성과 정의와 진리 추구는 차치(且置)하고 졸업증 장사, 기업을 위한 '인간제품'을 조달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건 아닌지 자성해야 한다. 대학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대학생들을 끝없는 트랙이 아니라 자유롭게 사유(思惟)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통감(痛感)해야 할 때다.

20대들도 김예슬 양의 선언을 계기로 억압됐던 자신의 꿈을 다시금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WEEKLY NEWSPAPER		1950년 4월 15일 창간
발행인	오영교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편집인	유훈우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편집장	정웅재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세상과 자신을 소통하기 위한 특별한 만남의 장

제1기 행정대학원 소통 리더십 최고위과정으로 초대합니다.

1. 지원 자격
· 정부기관, 정당, 기업체, 법조계, 공공기관, 문화계 등 고위급 인사, 기타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분
2. 전형방법: 서류전형
3. 전형일정
· 원서교부 및 접수: 2010. 3. 1(월) ~ 4. 15(목)까지
· 합격자 개별통보
4. 입학식: 2010. 4. 7(수) 18:30
인천 송도 국제도시 브릿지호텔 18층 스카이 세미나실
5. 원서교부 및 접수방법
· 홈페이지(http://gspp.dongguk.edu/, www.okesc.com)에서 지원서 다운로드 후 팩스, e-mail, 우편 및 방문접수
· 팩스접수: 032-883-2079
· e-메일 접수: o2nice@naver.com
· 우편 및 방문접수: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552번지 3층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소통리더십 최고위과정
6. 입학금: 495만원 (교재, 주차, 호텔식사, 원우회수첩, 앨범비 포함)
7. 문의처
· 책임교수 김인숙: Tel: 032-833-5022 / 016-776-6732
· 교육실장 이경미: Tel: 070-7789-5022 / 016-776-6732
Fax: 032-8337-2079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최고경영자과정 25기 모집

1기부터 24기까지 1,500여명을 배출한 최고의 "부동산경영자(CEO)"과정

1. 교육구성
- 교육기간: 2010.5.11~2010.8.25 (주 2회 16주, 4개월)
- 교육인원: 00명(서류심사에 의한 선발)
- 교육시간: 매주 화요일, 수요일 (18:30~21:30)
- 등록금: 485만원
2. 교육내용
- 부동산 시장 전망 및 투자
- 부동산 정책
- 부동산 개발 및 금융
- 가치창조를 위한 투자사례 및 연구
- 해외 부동산
3. 교육특징
- 해외 부동산 연수(일본 등)
- 부동산 그룹 STUDY
- 부동산 개발 사례 연구
- 문화연극제 및 워크숍
- 부부특강(재테크, 인문학 등)
- 테마부동산 탐방(졸업여행)
4. 원서교부 및 접수
- 제출서류: 입학지원서 1부
- 홈페이지(www.dgureceo.com)에서 입학지원서 다운로드, 작성 및 지원(이메일, 팩스, 우편 접수 가능)
5. 문의처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최고경영자과정 교육연구실
- tel.02.2260.8574/02.2260.8572
- fax.02.2263.8576
- 홈페이지 www.dgureceo.com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금주의 식단

월(4/5)	삼삼적구이(2200)/치즈돈가스(3000)/달걀비빔밥(2200)/스팸김치찌개(2500)
화(4/6)	소세지두루치기(2200)/치킨가스(2500)/고추잡채덮밥(2200)/순대국밥(2500)
수(4/7)	탕수육(2200)/함박스테이크(3000)/치킨굴소스덮밥(2200)/된장찌개(2500)
목(4/8)	오징어볶음(2200)/돈가스(2500)/중국식볶음밥(2200)/떡볶이치즈불닭(3000)
금(4/9)	제육비빔밥(2200)/샤브칼국수(2500)
월(4/5)	달걀비김치볶음(2200)/돈가스(2500)/치즈볶음밥(2200)/사골순만두국(2500)
화(4/6)	삼삼적구이(2200)/스파게티(2500)/치킨버섯카레라이스(2000)/어묵전골(2500)
수(4/7)	돈삼겹두루치기(2200)/새우가스(3000)/쇠고기숙지덮밥(2200)/육개장(2500)
목(4/8)	치킨탕수(2200)/치즈돈가스(3000)/참치김치볶음밥(2200)/부대찌개(2500)
금(4/9)	오삼불고기덮밥(2200)/설렁탕(2500)
월(4/5)	쭈꾸미제육덮밥(2200)/고구마돈가스(3000)/달걀비김치덮밥(2200)
화(4/6)	치킨구소스덮밥(2200)/피자돈가스(3000)/미트볼하이라이스(2000)
수(4/7)	짬뽕덮밥(2200)/치킨가스(2500)/새싹참치비빔밥(2200)
목(4/8)	돈삼겹두루치기(2200)/돈가스(2500)/버섯덮밥(2200)
금(4/9)	칠리치킨덮밥(2200)/참치콘볶음밥(2000)
월(4/5)	짬뽕덮밥(2200)/돈가스(2500)/소세지김치볶음밥(2200)
화(4/6)	달걀비빔밥(2200)/참치김치찌개(2500)/마파두부덮밥(2000)
수(4/7)	제육비빔밥(2200)/피자돈가스(3000)/고추잡채덮밥(2200)
목(4/8)	해물덮밥(2200)/카레돈가스(2800)/치킨볶음밥(2000)
금(4/9)	제육김치덮밥(2200)/치즈불닭볶음밥(3000)/산채비빔밥(2200)

롤리팝 사랑처럼 사랑스럽게

자신을 디자인하라!

2010 봄 트렌드 대학생 메이크업 소개

햇살이 따스한 봄이 다가오고 있다. 칙칙했던 수험생활을 끝내고 대학 생활을 시작한 새내기들은 호감 가는 선배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 구 학년 학생들은 새로 들어온 신입생보다 발랄한 매력을 보이도록 외적인 변화를 시도한다.

그러나 막상 화장대 앞에 앉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렵기만 하다면 여기를 주목하라. 10학년 새내기와 동행한 '2010 봄 메이크업 트렌드 따라잡기'가 당신을 캠퍼스의 퀸카, 킹카로 거듭나도록 도와줄 것이다.

2010 봄 메이크업 트렌드

마치 롤리팝 사랑처럼 알록달록하고 사랑스러운 메이크업이 2010년 봄 메이크업 트렌드의 특징이다. 2010년 봄은 유난히 길고 추웠던 겨울 탓인지 다른 때보다 과격적이고 비비드한 컬러들이 강세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뷰티 브랜드 입성로랑이 선정한 한국의 메이크업 아티스트(1999)이자 현재 한국 패션뷰티 학회 이사인 신단주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사랑스러움이 물씬 느껴지는 핑크나 연주황 등 파스텔 톤 산뜻한 색상은 매년 봄 메이크업의 필수 색상으로 손꼽히듯 올 봄에도 대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린 컬러의 눈매와 라벤더, 코랄 핑크 등의 톡톡 튀는 립스틱 색상들로 포인트를 주는 메이크업이 유행할 것이다"고 제안했다.

눈두덩이 위에 회색, 검정색 섀도우 및 아이라이너를 사용해 눈 꼬리를 길게 올리는 등 눈매를 강조하는 스모키 아이메이크업은 이번 봄에도 유행할 듯하다. 그러나 올 봄에 유행할 스모키 메이크업은 블랙 대신 브라운 색상을 사용해 볼륨있고 고급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얼굴에 따라 다른 화장을

사람마다 다른 얼굴 색상, 모양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각자의 타입에 맞게 메이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신단주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강조했다. 자신의 얼굴에 맞는 것을 선택하면 메이크업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희면서 창백한 느낌이 나는 피부는 핑크색, 노란빛이 도는 따뜻한 느낌의 피부는 오렌지 색상, 검은 피부는 베이지가 섞인 인디안 핑크 계열의 립스틱이 어울린다.

쌍꺼풀이 없는 눈은 섀도우 색깔을 잘못 고르면 자칫 멍든 듯 부어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런 고민이 있는 사람이라면 핑크, 보라 계열의 섀도우 보다는 은은한 오렌지의 섀도우가 적합하다.

얼굴이 커보여 격정이라면, T존 부위에 밝은 색상으로 하이라이트를 주고 턱선 부분에 어두운 색깔의 파우더로 명암을 주자. 이는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를 준다.

이젠 남학생도 메이크업을

로션, 스킨, 선크림을 바르는 것조차도 귀찮게 여기는 남학생들에게 아직 메이크업은 생소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올 봄 이미지 변신을 원하는 남학생들에게는 메이크업이 필요하다. 남성의 경우 눈썹을 다듬고 피부 보정을 위한 BB 크림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보다 깔끔해 보이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선크림 기능과 피부보정 기능을 둘 다 지닌 남성용 BB 크림을 활용해보자. 더불어 짙은 회색 아이브로 펜슬로 눈썹 사이 곳곳을 메꿔준다면 보다 자연스럽고 깔끔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

"내가 곧 스타일이다"라고 대답하게 말한 코코 샤넬처럼, 봄의 상큼함을 가득 담은 2010 봄 메이크업 트렌드를 자신의 개성에 맞게 적용해보자. 이미지 변신을 원하는 자, 용기를 내 화장대 앞으로 달려가 나만의 메이크업을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

이신혜 기자 leeshin@dongguk.edu
정보 제공 = 신단주 메이크업 아티스트



Before

직접 해보는 봄 메이크업

신단주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이번 봄 대학생 메이크업의 트렌드로 '자연스러움'을 제시했다. 더불어 직접 할 수 있는 쉬운 봄 메이크업을 소개했다.

STEP 1 피부표현 : 두꺼운 화장보다는 소량의 베이스로 얇고 가볍게 바르되 유분기가 있는 T존 부분만 파우더로 눌러주는 것이 좋다.

STEP 2 눈 : 봄의 정원을 연상케 하는 핑크 색깔의 섀도우를 눈두덩이에 전체적으로 넓게 펴바르고, 눈매 부분에 포인트를 주기 위한 그린 색깔의 섀도우를 세심하게 덧바른다. 눈 밑 애교 살까지 핑크 색깔의 섀도우를 발라준다. 브라운 계열의 아이라이너나 섀도우로 점막 곳곳을 매꿔 눈매를 강조하면 실제로보다 더욱 커 보이는 효과를 준다.

STEP 3 볼(Cheek) : 연한 핑크나 오렌지 컬러로 은은하게 그라데이션 해준다. 이때 터치를 광대 뼈 중앙으로 동그랗게 굴러듯 해주면 봄의 싱그러움과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다.

STEP 4 입술 : 핑크 색상은 꾸준히 유행에도 핫 트렌드로 사랑을 받고, 이와 더불어 오렌지 컬러가 대체이다. 여기에 다이아몬드처럼 투명하게 반짝이는 립글로스를 덧발라주면 더욱 볼륨있고 생기있는 입술이 완성된다.



After

천연 특산품의
인삼, 복령, 천마, 지황, 꿀 등
동목고
품목허가번호 000001

동목고는 이런 분들에게 좋습니다.....

동목고는 천연물 재료인 인삼, 복령, 천마, 지황, 꿀 등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식품으로, 병 후 회복기에 있는 병약자나 노인들의 건강 증진, 지구력을 요하는 수험생 또는 정신집중이 필요한 직장인들의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며, 여성들에게는 피부를 윤택하게 해주며 변비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 성장기 어린이
- 수험생
- 직장인
- 노약자
- 어약자

자매품

자매품 초코동목고는, 동목고를 섭취하는 분들에게 휴대가 간편하도록 만든 제품이며, 어린이나, 학생, 직장인, 여행자들에게 휴대가 쉽도록 하였습니다. 초코동목고로 건강하고 즐거운 일상이 되세요.

제품의 종류 1kg/500g/300g과 자매품으로 초코동목고가 있습니다.

새 생명이 싹트는 화창한 봄날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으로 나른해지기가 쉽습니다. 건강식품인 "동목고"와 "초코동목고"로 더 활기차고 역동적인 삶이 되세요. 감사한 분들에게 사랑과 효도를 표하는 상품으로 좋습니다.

◆ 판매처: 구내생활협동조합 (TEL. 02-2260-8949)

동목식품 무설 약용근자원연구소 (생명과학 명예교수 이 인 중)
문의 전화 : (02)2265-9156-7 (031)774-9515
011-204-9154 011-470-2211
홈페이지: http://www.dongokgo.com